

리듬 학습을 위한 V자 리듬 표기법 개발 연구*

Research on developing V-rhythm Notation for Rhythm Learning

양종모**

Jong Mo Yang

초록 연구의 목적은 리듬 학습에 유용한 V자 리듬 표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되는 악곡의 리듬을 표기할 수 있는 V자 리듬 표기법을 개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보완하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적용하여 표기법을 개선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리듬 표기법 수업을 받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해도 평가를 하고 면담하여 그 유용성을 조사하였다. 유용성 조사를 통해, 이 연구에서 개발한 V자 리듬 표기법은 표기 원칙이 단순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표기법을 익힐 수 있고, 리듬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V자 리듬 표기법을 활용할 때, 문제를 느끼거나 걸림이 없었으며, 홀박자, 겹박자, 당김음, 붙이줄 등의 리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리듬 학습, 리듬 표기법, V자 리듬 표기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complement) V-rhythm notation useful for rhythm learning. Through research, a notation that can mark most of the songs presented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with V was developed, and the notation was improved through expert review. The understanding of the pre-service teacher who learned rhythmic notation was tested and interviewed to confirm its usefulness. The V-rhythm notation developed in this study is useful for intuitively understanding and representing rhythms in beginner stages. Students responded that the V-rhythm notation developed in this study was simple, so it was understandable in a short time. They also reported that it was systematically organized when using V-rhythm notation so there was no problem when using it, and it help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hythm. The usefulness of the V-rhythm notation developed in this study was confirmed through music experts and pre-service teachers.

Key words: rhythm learning, rhythm notation, V-rhythm nota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grant from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Development Fund) in 2021.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myang@bnue.ac.kr

Professor,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4 Kyodaero, Yeonjae-gu, Busan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리듬은 “소리나 움직임의 규칙적인 반복과 관련이 있는 감각”(Oxford university press, 2022a), 혹은 “소리나 움직임의 규칙적인 강세의 반복구”(Oxford university press, 2022b)라고 정의한다. 리듬은 움직임과 소리 등에서 나타나는 강세 등에 의해 인간이 느끼는 감각과 그 감각을 만들어 내는 규칙적 반복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리듬은 음악에 한정하여 정의하기도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음악의 3요소 중 하나로, 음의 길고 짧음과 강약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되풀이되는 것(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2)”이라고 정의한다. 음악에서 리듬은 가락과 화성과 함께 음악의 3요소 중 하나이지만, 가락이나 화성 없이 리듬만으로 음악이 성립하기 때문에 음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Wikipedia. 2022, rhythm).

음악의 핵심적 요소인 리듬에 대해 근대 음악교육의 창시자들인 달크로즈(E. Dalcroze, 1865-1950), 코다이(Z. Kodály, 1882-1967), 오르프(C. Orff, 1895-1982) 등은 학습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다(Han et al., 2019; Seo, 2008, Song, 2019). 그 방법들은 행동으로 직접 리듬을 표현하거나 기호나 이름으로 표기하는 보조적 장치들이다(Rim et al., 2010; Choksy, 1999; Orff, & Keetmann, 1978). 달크로즈는 리듬을 주로 행동으로 표현했고, 코다이는 리듬에 고정식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썼다. 그리고 오르프는 언어를 중심에 두는 리듬 읽기, 오스티나토, 몸리듬 치기 등 다양한 형태의 리듬 학습 방식을 제안했다.

한국 음악교육계에서는 앞의 외국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적용해 왔지만, 각각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특히 대부분은 리듬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리듬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구별해 적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리듬 학습의 보조 도구로서 V자 리듬 표기법의 개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듬 학습을 위해 음의 길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 음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음표는 리듬의 길이를 상징하지만 음의 길이에 비례한 모습을 직관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초보자는 음표를 보고 리듬의 길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초급자를 위해서 음표의 길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조적 도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보자들이 리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도구는 코다이, 오르프 등의 개발했고,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언어적으로 구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코다이 리듬 표기법은 ♩ ♪ ♫ = | □ = 타 티티 등으로 표기한다(Cho, 2004), 셋잇단음표는 triola(트리올라)라고 하는데(Choksy, 1999) 영어식

으로는 세 음절이지만 우리나라는 네 음절이기 때문에 리듬과 언어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는 겹박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코다이 표기법은 겹박자와 홑박자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아 리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맞는 리듬 학습 보조 도구를 필요로 한다.

셋째, V자 리듬 표기법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보조 도구라는 장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원리나 원칙이 연구되지 않았다.¹⁾ 실제로 V자 표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자료, 일본 교과서, 북한 교과서 등에서 겹박자, 붙임줄, 당김음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거나 있어도 방식이 제각각이다(佐佐木英, 黒沢隆朝, 1953; Kim et al., 1990).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초보자들의 리듬 학습에 유용한 V자 리듬 표기법을 개발(보완)²⁾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제시되고 있는 홑박자나 겹박자의 구분이나 당김음 혹은 붙임줄 등을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그 표기법의 유용성을 검증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유용성 검증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학습의 효율성, 학습 후 활용성, 리듬 특성 이해 능력 향상, 그리고 학습자의 만족감 등에 대한 요소를 살펴보고, 그리고 교수자 측면에서는 교수 시간의 효율성, 표기법의 일관성, 리듬 원리 지도의 용이성 등을 살펴본다(Jeong, 2013, p. 70).

II. 이론적 배경

1. 리듬의 의미와 학습 목표

리듬(rhythm)이란 그리스어 동사 rheo(흐르다)에서 온 말이다(Warner, 1991, p. 11). 우리의 자연은 계절, 썰물과 밀물, 그리고 달 모습 등에서 시간에 따라 반복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 규칙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 살고 있다. 음악에서 리듬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흐름과 관련이 있으며 “일정한 박자나 규칙에 의하여 음의 장단(長短)이나 강약(強弱) 등이 반복될 때의 그 규칙적인 음의 흐름”이라고 정의하기도

1) 연구자는 3년 동안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V자 리듬 기호에 대한 경험 여부를 조사했다. 학생들 중 50% 이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에서 V자 리듬 기호를 썼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V자 표기법은 제각각이었고,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은 없었다.

2) 이 논문에서 ‘보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일본과 북한의 교과서에서 개발된 V자 리듬 표기법을 보완하는 것이며, V자 리듬 표기법을 하나의 체계로 개발하여 완성하는 작업이기도 하여 개발(보완)이라고 표현하였다.

하고(Oxford university press, 2022b), 또한 “강하고 약한 요소의 연속적인 움직임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Wikipedia, Rhythm, 2022). 리듬의 정의에서는 리듬은 장단과 강세가 반복되고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부분이 공통적이다. 음의 흐름을 배우는 리듬 학습은 리듬을 인식하고 식별하고 리듬적 요소에 반응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가창, 기악, 감상 및 작곡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의 음악적 활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부분이다(Lee, 2000, p. 2).

리듬 학습을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의 일반적이 순서이다(Seung et al., 2020, p. 164). 여러 지도법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우리의 리듬 학습의 목표를 정리해 볼 수 있다.

Kodály는 음악교육의 목표를 음악 읽고 쓰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Cho, 2004, p. 57). Kodály의 리듬 학습의 목표 역시 리듬 읽고 쓰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리듬 읽고 쓰기는 악보의 리듬을 소리내어 읽는 것, 소리를 듣고 악보로 그리는 것을 포함한다.

Dalcroze는 리듬 능력을 정의적 측면, 인지적 측면, 청각적 변별력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목표를 진술한다(Lee, 1999, p. 268). 정의적 측면은 리듬을 느끼는 것이다. 리듬의 진동에 따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지적 측면은 리듬을 듣고 특성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청각적 변별력은 리듬을 듣고 다른 리듬에서는 다른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한 손을 치다가 리듬이 달라지면 다른 손으로 치게 한다든지 표정을 달리할 수 있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며, 리듬에 따라 적절한 신체 동작(혹은 반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rff의 리듬 학습의 목표는 리듬을 말로, 신체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리듬에 어울리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eung et al., 2020, pp. 115-116). 이를 위해 Orff는 그의 연습곡(Orff-Schulwerk)에서 여러 가지 말 리듬 연습곡을 제시하기도 하고(Orff, & Keetmann, 1978, pp. 68-70), 리듬 모방(Orff, & Keetmann, 1978, pp. 71-73), 리듬 오스티나토(Orff, & Keetmann, 1978, pp. 78-79), 리듬 론도(Orff, & Keetmann, 1978, pp. 78-91) 등 다양한 형태의 리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Orff는 이러한 리듬 연습을 통해 리듬을 이해하고 느끼고, 실제 연주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교수법에 따라 리듬 학습의 목표와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리듬 학습의 목표는 리듬을 구별하고 이해하는 것, 리듬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이다.

2. 리듬 학습의 내용

리듬 학습 내용은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교수법 문헌에서 정리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리듬 요소 및 개념에 대해 “박, 박자, 장단, 장단의 세, 음의 길고 짧음, 간단한 리듬꼴, 장단꼴, 말붙임새, 여러 가지 리듬꼴 등”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p. 18). 여기에서 중복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박, 박자, 음의 길고 짧음, 리듬꼴, 장단의 세, 말붙임새 등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015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리듬의 하위 개념은 일정하게 치는 박, 규칙적인 강세가 있는 박자, 리듬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음의 길고 짧음. 그리고 리듬의 형태, 강세와 말의 붙임새 등 비교적 대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음악 읽고 쓰기를 목표로 하는 Kodály 교수법에서는 박, 리듬, 오스티나토, 박자(2/4, 3/3, 3/8, 4/4, 6/8, 9/8, 7/4, 7/8), 각종 음표, 셋잇단음표, 마디선, 당김음, 붙임줄, 강세, 리듬패턴, 반복 등 1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Szőnyi, 1990, p. 31). Kodály 교수법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비해 리듬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습해야 하는 개념들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이 방식은 음악교육이나 수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리듬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Dalcroze의 주장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Dalcroze는 좋은 리듬 감각을 갖기 위해 학습해야 할 리듬의 내용을 <Table 1>과 같이 33개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Lee, 2002, pp. 17-18).

<Table 1> The content of Dalcroze's rhythm learning

1) Understanding the interrelationships of time, space, force, weight, balance, fluidity, 2) Understanding of regular beats (crusic, metacrusic, anacrusic beat), 3) Playing speed, 4) Gradually changing playing speed (accelerando, ritardando, etc.), 5) Changing strength, 6) Changing rhythm and length of rhythm (crescendo, diminuendo), 7) Articulation, 8) Accent, 9) Rhythm, 10) Rest, 11) Length of note, 12) Divisions of note, 13) Form of rhythm and beat, 14) Intrinsic beat (basic rhythm) 15) Fragmentation, 16) Single rate form (synchronous, verbal, variational, A-A-B-A form, etc.), 17) Contraction, 18) Enlargement, 19) Rhythm counterpoint, 20) Syncopation, 21) Monody with accompaniment, 22) Counterform, 23) Canon, 24) Fuga, 25) Additional rhythm, 26) Unbalanced bars, 27) Unbalanced beats, 28) Unbalanced bars and beats, 29) Compound time, 30) Hemiola, 31) Rhythmic change, 32) 12 note division, 33) Rubato.

Dalcroze가 리듬 요소를 세세하게 지시하는 것은 리듬의 요소를 다양화하여 신체로 의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Rim et al., 2010, pp. 29-33). 음악을 연주할 때 시간, 공간, 힘, 무게, 균형, 유동성의 상호 연관 관계 이해, 규칙적인

박, 연구 속도, 강약, 아티큘레이션, 악센트, 박자 등을 고려하고, 음악을 듣고 반응할 때도 앞의 리듬 요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신체 표현이 가능하다.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음악적 용어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의 특성에 대해 명료한 이해가 가능하며 자연스럽게 교육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

3. 리듬 학습 방법

1) 전통 기보 활용

리듬 학습 방법 중 전통 기보 활용이란 5선보에 그려진 음표나 우리나라의 정간보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5선보는 음악을 정해진 음표와 쉼표로 기록하고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 때 활용한다. 리듬 학습을 할 때, 오선보를 보면서 각각의 음표나 쉼표에 따라 정해진 길이의 소리를 낸다. 음악 학습은 음표를 읽고 쓰는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음표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음악교육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다만 초급 단계에서 5선보를 읽고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 도구를 활용한다. 그것은 다음 설명에서 제시하는 리듬 언어, 바, 칸 등이다.

2) 리듬 언어 활용

리듬 학습에서 리듬을 소리 내는 방식으로 악기 혹은 물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리듬 언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리듬 읽기에 언어를 활용하면 의미 없는 소리만을 내는 방식(물체로 소리 내는 방식)과는 다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듬의 길이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면 길이를 인지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쓰는 언어를 리듬에 따라 읽으면 리듬 감각을 언어로 느낄 수 있다.

리듬 학습에 언어를 활용하는 방식은 고정 리듬 언어 방식과 비고정 리듬 언어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 리듬 언어 방식은 음표의 길이에 따라 고유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Kodály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고정 리듬 언어 방식은 교수자나 학습자의 선호나 기준에 따라 음표나 프레이즈를 여러 가지 단어나 문장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Orff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고정식 리듬 언어 방식(Kodály식)

Kodály는 리듬 요소들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리듬을 읽기 위한 기호와 리듬 말을 제시한다. Kodály가 제시한 리듬 읽기 방식은 프랑스인 쉐비(E. Chevé, 1804-1864)의 시스템에서 차용한 것이며(Szőnyi, 1990, p. 21; Choksy, 1999, p. 21), 음표에 따라 결정된 이름을 활용하는 고정식 언어 방식이다. Kodály의 리듬 기호는 4분음표는 따(ta), 8분음표는 티(ti), 셋잇단음표는 트리올라(triola) 등으로 쓴다. 척시(L. Choksy)는 Kodály는 리듬에 따라 고정된 리듬 이름을 붙여 연습함으로써 음표를 정확하게 읽고, 음악을 들을 때 고정된 언어로 들을 수 있어 음표를 길이에 따라 정확히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Choksy, 1999, pp. 12-13). Kodály의 리듬 이름은 개별 음표를 읽고 쓰는 데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홀박자와 겹박자를 구분하는 리듬 말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Kodály는 음표의 길이를 기준으로 언어를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만으로 홀박자와 겹박자는 구분하기는 어렵다. 둘째,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기에 어려운 말들이 있다. 셋잇단음표는 tri-o-la(트리올라)라고 읽는데, 트리올라는 영어로 모음이 세 음절이지만 우리말로는 네 음절로 읽힌다. 세 개의 음표를 네 음절로 읽힌다는 것은 음표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Kodály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읽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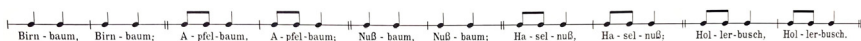
(2) 비교정식 리듬 언어 방식

비고정식 리듬 언어 방식은 개별 음표에 따라 고정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고 전체 리듬의 특성에 따라 어울리는 말을 붙여서 읽는 방식이다. 오르프 숄베르크(Orff-Schulwerk)에서는 리듬과 박자의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이 일반적인 언어를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언어는 리듬의 기본 요소인 길고 짧음, 강세, 그리고 박자 같은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학생, 어린이 그리고 어른조차도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리듬적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천적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밀을 열지 못할 뿐이다(Warner, 1991, p. 13).

Orff는 언어에 리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리듬을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하기 위해서 언어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다. Orff는 음표에 따라 언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단어를 적용한다. 가사가 있는 경우 그 가사를 활용하고, 가사가 없을

때는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적용한다. 언어를 적용할 때, 하나의 음표를 계속 같은 용어를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예가 다음 [Figure 1]에서 나타난다(Orff & Keetman, 1978, p. 68).



[Figure 1] Orff's examples of non-fixed language utilization

Orff의 교재 오르프 숄베르크(Orff-Schulwerk, Musik für Kinder)에는 리듬에 말을 붙이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악보 첫째 둘째 마디의 4분음표 각각은 Birn-baum이며 다섯째와 여섯째 마디의 4분음표 각각은 Nuß-baum이다. 그리고 셋째 넷째 마디의 8분음표 두 개는 각각 A-pfel이고 일곱 여덟 번째 마디의 8분음표는 각각 Ha-sel이다. Orff는 음표의 길이에 따라 말을 고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다른 말을 써서 리듬을 표현하고 있다. Orff는 리듬의 형태에 따라 비고정식 언어를 적용함으로써 언어에 내재해 있는 리듬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Orff의 리듬 학습은 리듬을 언어로 익히는 방식과 함께 신체 악기를 활용하고 즉흥 선율을 짓는 활동으로 발전한다(Rim et al., 2010, p. 200).

3) 공간 활용

리듬 학습의 초급 단계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중 한 가지는 음표의 크기가 리듬의 흐름이나 시간만큼의 공간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박자와 두 박자의 음표의 크기가 길이와 비례하지 않는다. 5선에 그릴 때 음표와 음표 사이의 공간으로 음표의 길이를 표현하고 있지만 초보자가 그 공간의 의미를 쉽게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초보자를 위한 교재들에서는 음표의 길이를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그림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나라의 음악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음표의 길이 표시 방법을 살펴보자.

독일의 두엣 음악 교과서(Duett Schülerbuch 1/2)에는 음의 길이를 바(bar)로 표시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음악 교과서 앞부분에서는 악보를 제시하지 않고 [Figure 2]와 같이 길이에 비례한 크기의 바와 박수를 제시한다(Neumann et al., 2010, p. 17). 이런 방식은 바의 길이에 따라 음의 길고 짧음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3]은 음표와 바를 대응시켜 음표의 길이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준다(Neumann et al., 2010, p. 93). 독일 교과서에서는 음의 길이를 바가 차지하는 공간

으로 대응함으로써, 음의 길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악보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2] Response of music notes and bars (Ger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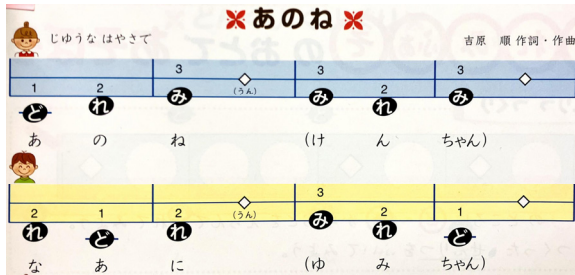


[Figure 3] Response of music notes and bars (German)

일본의 음악 교과서 중 교육출판(教育出版)에서 펴낸 음악교과서 음악의 선물(音楽の贈り物)에는 리듬을 칸을 활용하여 제시한다. 가로의 칸을 박자 단위로 세로줄을 그리고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가사를 음의 길이대로 배치하여 음의 길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학년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 20여곡 중 10곡에 대해 [Figure 4]와 같이 칸에 가사를 넣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木村次宏 et al., 2014. p. 16). 그리고 [Figure 5]에서 보는 것처럼 칸 안에 계이름을 넣어서 칸과 음 길이의 관계를 대응시켜 자연스럽게 음의 길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木村次宏 et al., 2014, p. 35).



[Figure 4] Lyrics in the blanks (Japan)



[Figure 5] Blanks with do re mi (Japan)

일본의 2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Figure 6]과 같이 칸에 음표를 넣어서 음표의 박자(2/4) 개념을 직관적으로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木村次宏 et al., 2014. p. 16).



[Figure 6] Blanks with music notes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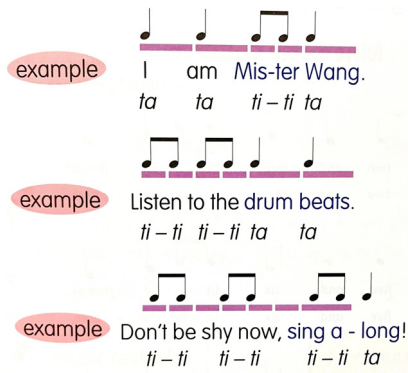
2학년 교과서에서는 음표의 길이를 정확히 보여 주기 위해 오선보 위에 칸을 만들고, 칸에 음의 길이를 고려하여 음표를 배치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Figure 7]에서 보여 주는 이 방식도 음표의 길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木村次宏 et al., 2014. p. 32).



[Figure 7] Blanks with music notes (Japan)

싱가포르의 음악 교과서 중 피어선(Pearson Education South Asia Pte Ltd)에서 출판한 음악 교과서(Music Primary)에서는 리듬 음표를 그 길이에 해당하는 바로 표시하는 방식을 [Figure 8]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Hwang, 2012, p. 21). 그것은 4분음표 한 개와

8분음표 두 개가 붙은 리듬이 나오는 노래에서 음표와 바를 함께 제시한다. 동시에 ‘타 티타’라는 Kodály 리듬말을 써 놓고 있다. 리듬의 길이를 바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리듬을 읽는 고정식 이름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보인다. 싱가포르에서 이런 형태는 1학년에 한 번만 제시되고, 이후에는 악보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gure 8] Music notes, bars, rhythmic words
(Singapore)

중국 인민음악출판사에서 내놓은 음악 교과서에는 특이하게 모든 음악을 숫자보로 제시하고 있다. 리듬은 [Figure 9]와 같이 가로로 한 마디씩 칸을 만들어 가사를 넣어 표시한다(吴斌 et al., 2001, p. 12). 그리고 [Figure 10]과 같이 숫자보에서는 음의 길이에 따라 숫자의 공간을 배치하여 음의 길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吴斌 et al., 2001, p. 24).

小绳细,	小绳长,	小绳两头	拴铃铛,
走起路来	叮当响,	跳起舞来	响叮当。

[Figure 9] Blanks and lyrics (China)



[Figure 10] Number score and the length of sounds (China)

미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실버-버데트(Silver-Brudett) 음악 교과서에서도 음표 이외의 방식으로 음의 길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Berger et al., 2008). [Figure 11]과 같이 ‘옥수수 밭에 놀러가(Go Around the Corn, Sally)’라는 노래에서 기본 박(4분음표)을 옥수수 한 개로 표시하여 직관적으로 기본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Berger et al., 2008, p. 13), [Figure 12]와 같은 ‘銀月船(Silver Moon Boat)’란 노래에서는 한 박을 배 한 척으로 표시하고 있다(Berger et al., 2008, p. 15). 음표와 함께 제시하는 옥수수나 배는 일정박이라는 리듬 요소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교과서에는 일정박 이외의 박에 대해서는 기호나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고 모든 리듬을 악보로만 제시하고 있다.



[Figure 11] Picture of regular beats (U.S.A)



[Figure 12] Picture of regular beats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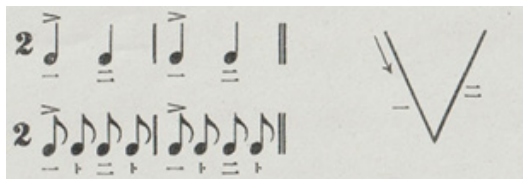
각 나라의 음악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음표의 보조 장치인 칸이나 바 혹은 그림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음표의 길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표 이외의 도구나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확인해 준다. 다음은 리듬 학습의 보조 도구 중 한 가지인 V자 리듬 표기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4. V자 리듬 표기법

V자 리듬 표기법은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한 우리나라 문헌 자료는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음악교육 논문과 단행본 그리고 음악 교과서 등을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일본의 후쿠오카교육대학교 기무라(木村次宏) 교수에게 “일본의 역대 음악 교과서에 V자 리듬 표기가 제시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일주일 후에 기무라(木村次宏) 교수는 1950년대 음악 교과서에서 발견했고 그 이후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알려 주면서, 1950년대 교과서에 제시된 V자 리듬 표기법을 보내 주었다. 그리고 북한의 1990년대 음악 교과서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된 V자 리듬 표기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에서 그림 자료로 찾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문헌과 인터넷 자료에 근거하여 V자 표기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교과서의 V자 리듬 표기법

일본에서 1953년에 출판된 소학음악 3학년 교과서에 리듬을 표시하는 V자가 나타나고 있다(佐佐木英 et al., 1953, p. 15). [Figure 13]을 보면, 2박자 표기가 있고, 왼쪽 위에 리듬은 한 마디에 4분음표가 두 개 있으며, 각각의 음표 아래 一과 二가 쓰여 있고, 또 그 아래에는 8분음표에 一, 다음 8분음표에 一과 二가 있고, 다음 8분음표에 二, 다음은 一과 二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V자가 있고 좌우에 一과 二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 그림으로 보면 2박자 한 마디가 V자 한 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그림은 다른 그림과 V자 기준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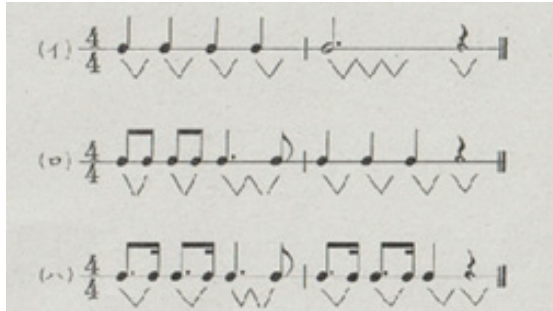
[Figure 13] Music notes and V letter (Japan)

1954년도 소학음악 5학년 교과서에서는 [Figur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박에 따라 V자를 붙이는 방식을 보여 준다(佐佐木英 et al., 1954, p. 16). 2/4, 3/4, 4/4박자에서는 기본박인 4분음표 한 개를 V자 한 개로 표시했고, 4분음표 두 개는 V자 두 개로 표시한다. 그런데 6/8박자에서는 기본박이 8분음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8분음표를 V자 한 개로 표시하고 6/8박자에서 4분음표는 V자 두 개를 붙여서 W로 그리고 있다. 또 붙임줄은 음표의 길이만큼 V자를 붙여서 그리고 있다. [Figure 14]에서 보여주는 것을 정리하면, 박자에 따라 기본박을 V자 한 개로 표기하고, 기본박보다 길어지면 그 길이만큼의 V자를 붙여서 그리며, 붙임줄이 있으면 V자도 연결해서 그리는 표기법을 보여준다.



[Figure 14] V letter on the basic beats (Japan)

또 [Figure 15]에서는 여러 가지 점음표를 표기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佐佐木英 et al., 1954, p. 9). 점4분음표는 4분음표에 해당하는 V자 한 개와 8분음표에 해당하는 빗금을 붙여서 V로 그리고, 16분음표는 8분음표에 해당하는 빗금의 1/2만큼의 길이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쉼표는 점선($\text{z} = \text{V}$)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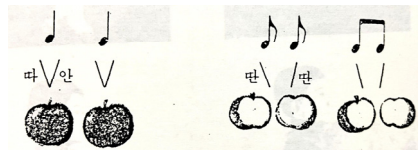


[Figure 15] Various music notes and V letter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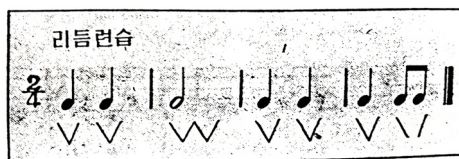
일본의 1950년대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V자 리듬 표기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에서는 1950년대에 V자가 음악 교과서에 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음악 교과서에서는 사라졌다(木村次宏 교수, 인터뷰). 2) 박자의 기본박 한 개를 V자 한 개로 표기한다(3/4박자에서는 기본박을 V자 세 개로, 6/8박자에서는 기본박을 V자 6개로 한다). 3) 여러 가지 음표를 V자로 그릴 때는 음의 길이에 비례하여 그리되, 쉼표는 점선으로 그린다. 4) 붙임줄이 있는 경우 붙어 있는 음표의 길이에 비례하여 V자를 그린다. 5) 당김음 등에 대한 예시는 보이지 않는다.

2) 북한 교과서의 V자 리듬 표기법

V자 리듬 표기법은 북한 인민학교 음악교과서에서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학년 교과서에서 제시된 것은 [Figure 16]에서 보인다. 4분음표는 V로 표기하고 ‘따안’이라고 읽는다. 8분음표는 \ 혹은 /로 표기하고 ‘판’으로 읽는다(Jang et al., 1990, p. 11). [Figure 17]에는 박자에 따른 V자 표기법과 2분음표를 V자 두 개를 연결하여 표시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Jang et al., 1990, p. 53).



[Figure 16] Music notes and V-rhyt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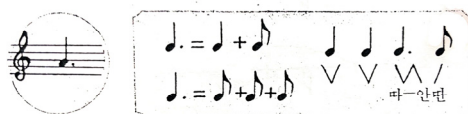


[Figure 17] A quarter note and a half note on the 2/4 beat

북한 3학년 교과서에서는 [Figure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8분쉼표, 4분쉼표 등을 V자로 그리는 방식(Ju et al., 1990, p. 49)과 [Figure 19]에서는 점4분음표를 4분음표에 해당하는 V자 한 개와 점에 해당하는 8분음표의 빗금(∖)을 붙여 ∖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보여준다(Ju et al., 1990, p.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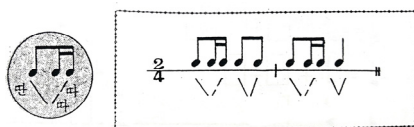


[Figure 18] Eighth rest, a quarter rest on the 4/4 b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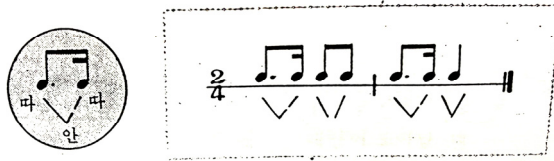


[Figure 19] Dotted notes

북한 4학년 교과서에서는 [Figure 20]와 [Figure 21]과 같이 점4분음표와 연속된 16분음표를 그리는 방식(Hong et al., 1990, p. 28), 그리고 점8분음표와 16분음표에 대한 V자 그리는 방식을 보여 준다(Hong et al., 1990, p.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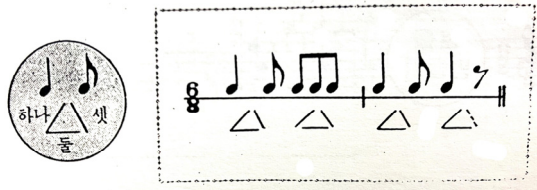


[Figure 20] A dotted quarter note, semiquaver



[Figure 21] Dotted eighth notes, semiquaver

북한 4학년 교과서에서는 겹박자인 6/8박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Figure 22]에서 보는 것처럼 6/8박자의 기본박이 점4분음표가 될 수 있도록 한 마디에 두 개의 강세의 위치에 삼각형을 그려 놓고 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의 묶음박이라고 할 수 있는 4분음표 한 개와 8분음표 1개를 V자 기울인 것과 빗금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또 다른 하나의 묶음박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개의 8분음표를 역시 유사한 삼각형 형태로 제시하되, 각각의 선들 사이에 공간을 주어서 음표가 세 개임을 나타낸다(Hong et al., 1990, p. 56). 이는 6/8박자의 겹박자 성격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Figure 22] Notations of bundle of beats of compound time

북한의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V자 리듬 표기법은 앞서 일본의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6/8박자를 그릴 때, 일본은 3개의 묶음(겹박자)을 고려하지 않았고, 북한은 한 마디를 삼각형 두 개로 표기하여 겹박자에 대한 별도의 원칙으로 그리는 방식을 보여준다. 북한의 교과서가 일본에 비해 V자 기호에 대한 예시가 많고, 일본에 없는 겹박자의 표기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음악적 특성을 좀 더 상세하게 V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나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모두 정박의 경우만을 표기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당김음에 대한 표기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음악에서 당김음은 자주 출현하고, 학생들이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표기법이 필요할 것인데, 두 나라 모두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겹박자의 삼각형은 다른 리듬을 그리는 V자 방식과 모양으로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표식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3) 우리나라의 인터넷에서 제시되는 V자 리듬 표기법

V자 리듬 표기법에 대한 국내의 연구나 문헌 자료는 찾기가 힘들지만 인터넷에서는 관련 자료가 다수 소개되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동탄필리아 음악학원’이 탑재한 것이다(Dongtan Philia Music Academy, 2022). 여기에서는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점2분음표, 온음표 등과 관련 쉼표를 제시하고 각각의 V자 리듬 기호의 모양과 리듬 말을 제시하고 있다.

박자 기호에 따른 V자 리듬 표기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금새공부방’이란 곳에서 탑재한 자료에서 나타난다(Geumse Study Room, 2022). 이 표에서는 2/2, 4/4, 9/8박자 등의 기본박을 표기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2/2박자는 한 마디를 V자 두 개로 표시하는데, 일본이나 북한에서는 2/2박자를 제시하지 않아 다른 체제와 비교는 불가능하다. 다만 4/4박자는 한 마디를 V자 네 개, 9/8박자는 한 마디를 V자 9개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일본과 동일 방식을 보여준다. ‘금새공부방’의 표기법은 기본박만 제시하고 있어서 당김음, 겹박자 등의 표기법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V자 기호의 표기법에 대해 일본의 음악 교과서, 북한의 음악 교과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단순한 음악에서는 기본박을 V자 한 개로 표시하고 음표의 길이에 대응하여 빗금을 가감한다. 2) 쉼표는 음표와 같은 모양으로 점선으로 그린다. 3) 홑박자와 겹박자를 구분하지 않고 박자에 따른 기본박을 V자 한 개로 표기하는 방법(일본과 인터넷 자료)과 홑박자와 겹박자를 구분하여 홑박자는 기본박을 V자로 표기하고, 겹박자는 세 개의 묶음을 하나의 삼각형으로 표기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타난다. 4) 붙임줄의 경우 음이 붙어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음표에 대응하여 V자를 붙여서 그린다. 5) 당김음에 대한 표기법은 찾을 수 없다.

현재까지 개발된 V자 리듬 표기법은 간단한 음들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듬을 지도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홑박자와 겹박자의 구분, 당김음, 붙임줄 등 비교적 복잡한 리듬을 표기하는 원칙이 보완되어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초급학생들의 리듬 학습을 돕는 리듬 기호 개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초등학생들에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험 대상으로 초등학생들로 해야 하겠지만, 우선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의 수준에서 리듬 표기법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의 검토하여 표기법 자체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이 연구의 대상을 전문가와 예비교사로 한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 V자 리듬 표기법 초안 검토를 위해 참여한 전문가

본 연구자가 보완한 V자 리듬 표기법 초안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3인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3인의 전문가는 현장에서 리듬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음악교육 전문가인 교육대학교 교수 1명, 초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하는 음악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교사 1명, 그리고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바이올린 전공 대학 강사 1명이다. 이들 각각에게 V자 리듬 표기법의 개발 목적을 설명하고, 표기법의 원칙과 용례를 설명한 뒤 다음의 검토 내용을 제시하고 검토를 부탁하였다. 검토 내용은 다음 네 가지였다. 1) (효율성) 초등학교 교과서의 가창곡을 V자로 표기할 수 있는 표기법인가? 2) (사용의 만족성) 표기법은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원리로 구성되었고, 쉽게 학습할 수 있는가? 3) (학습의 용이성) V자로 리듬을 그리면 원 리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4) 표기법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가?

2) V자 리듬 표기법의 이해 검사에 참여한 학생(예비교사)

V자 리듬 표기법의 이해 정도를 검사하는 데 00교대 3학년 5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남학생 23명, 여학생 31명이었으며, 00과와 00과 두 개의 과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V자 리듬 표기법을 학습하고, 그에 대해 검사를 하였다. 검사는 리듬을 V자로 그릴 수 있는 지필 시험으로 확인하여 V자 표기법의 이해도를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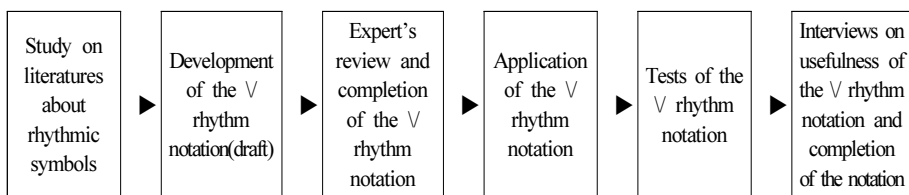
3) V자 리듬 표기법에 대한 유용성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예비교사)

이해 검사에 참여한 학생 중 3명을 선정하여 V자 리듬 표기법의 유용성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유용성은 선행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효율성, 학습의 용이성, 사용의 만족성 등을 요소로 하였다. 여러 수준의 학생들의 생각을 수집하기 위해 음악 개념에 대한 시험 성적별로 상, 중, 하에서 각각 한 명씩 선정하였다. A학생은 음악 성적이 상이며, V자 리듬 표기법의 문항에 대해 전혀 오류 없이 맞춘 학생 1명, B학생은 음악 성적이 중인 학생이면서 V자 리듬 표기법에 대해 1-2개 정도의 오류가 있었던 학생, 그리고 C학생은 음악 성적이 하이며, V자 리듬 표기법에 대해서는 중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이었다.

2. V자 리듬 표기법 개발(보완)

1) V자 리듬 표기법 개발(보완) 단계

V자 표기법의 개발 절차는 1) 리듬 기호에 대한 문헌 연구, 2) V자 표기법 개발, 3) 표기법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표기법 완성, 4) V자 표기법 수업 적용(예비교사 대상), 5) V자 표기법 이해 검사, 6) V자 리듬 기호의 유용성에 관한 면담 및 표기법 완성 등의 순서이며, [Figure 23]으로 정리할 수 있다.



[Figure 23] Development stage of the V rhythm notation

2) V자 리듬 표기법 개발

리듬꼴을 V자로 그리는 예시는 일본과 북한의 음악 교과서이다. 연구자는 두 가지 문헌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V자 리듬 표기법을 만들고, 다소 복잡한 리듬 표기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다음은 V자 리듬 표기법을 보

완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과 북한의 음악 교과서에서 제시된 것은 J를 주로 V자 한 개로 표기하고 J는 V자 한 개로 표기하며, 음의 길이에 따라 V 혹은 V자를 증감하면서 그린다. 이 원리에 따라 민음표와 점음표를 표기하면 다음 <Table 2>와 같다. 쉼표는 음표의 모양에 따르되 점선으로 그린다.

<Table 2> V Rhythm notation according to the notes

Notes	V Rhythm notation according to the notes				
Basic notes	J = V	J = V	J = V	J = V	o = VVV
Dotted notes	J = V	J = V	J = V	J = V	o = VVVV
Rest	Shaped like a note, but marked by a dotted line				

V자 리듬 표기법 중에서 홀박자와 겹박자의 표기에 많은 검토를 거쳤다. 물론 단순한 홀박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문헌에 표기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박자표의 분모를 기본박으로 하는 원리에 따라 2/4박자의 기본박은 4분음표(J)이며, 4분음표는 V자 한 개로 해서 한 마디는 V자 두 개(V V)의 형태로 만들어진단다. 이 같은 방식으로 3/4박자는 한 마디가 V자 세 개(V V V), 4/4박자는 V자 네 개(V V V V)가 된다. 그런데 3/8박자는 8분음표가 3개가 있는 박자이며, 8분음표는 4분음표를 표시한 V자의 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빗금인 V자로 표시하여 한 마디는 8분음표 세 개(V / V)로 표시한다.

다음은 겹박자 표기법에 대한 것이다. 겹박자는 일본의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일본은 [Figure 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8 박자의 기본박 8분음표(J)를 V자로 한 개 표기하여 한 마디를 V V V V V V로 표기하고, 북한은 [Figure 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8 박자의 기본박을 점4분음표(J)로 간주하여 한 마디를 삼각형 두 개(△ △)로 표기하고 있다. 북한이 제시한 삼각형(△)은 한 개가 점4분음표 한 개에 해당되고, 빗금 세 개를 의미한다.

일본은 6/8박자를 표시할 때, 기본박 8분음표를 기계적으로 6개 표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6/8박자를 표시할 때, 삼각형 두 개를 표시함으로써, 겹박자의 속성을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II-2장 ‘리듬 학습의 내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박자를 제시하고, Kodály는 3/8, 3/4 등의 홀박자와 6/8, 9/8 등의 겹박자를 제시하고 있으며, Dalcroze는 ‘겹박자’를 리듬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겹박자’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표기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겹박자의 특성을 표기하는 데는 북한의 방식이 개념적으로는 적절하지만 그 모양

이 다른 박을 표기하는 방식인 V자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방식은 세 개의 음표를 묶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음표를 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겹박자의 특성을 살리되, 다른 음표를 표시하는 방식과 일관성이 있는 방식을 고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겹박자 6/8박자는 \를 기본박의 형태로 제시하기로 하였고, 6/8박자 한 마디는 \ \, 9/8박자 한 마디는 \ \ \, 12/8박자 한 마디는 \ \ \ \ 등으로 그리는 방식을 고안했고, 전문가들의 호응을 받았다.

<Table 3> V Rhythm notation according to the beats

Beats	V Rhythm notation according to the beats			
Basic beats of simple time	2/4 = V V	3/4 = V V V	4/4 = V V V V	3/8 = \ \ \
Basic beats of compound time	6/8 = \ \ \	9/8 = \ \ \ \	12/8 = \ \ \ \ \	

그리고 붙임줄을 V자로 표시하는 기준도 고안했다. 그 기준은 “기본박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음표의 길이대로 띄고 붙이기를 한다”는 것이다. 붙임줄의 경우 2/4박자에서 ♩로 그려져 있다면 2/4 박자의 기본 박 V V 형태를 유지하면서 음표의 길이가 V자 두 개가 붙어 있는 형상이니 두 개를 붙여서 W로 그린다. 만일 3/4박자의 리듬이 ♩ ♩로 그려져 있다면 3/4박자 기본박인 V V V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여, 음의 길이대로 4분음표에 해당하는 V자 두 개를 붙이고, 8분음표에 해당하는 \와 /를 붙여 W V로 그리면 된다.

그리고 당김음 역시 기준이 필요하다. 2/4박자의 한 마디가 ♩인 V자를 그릴 때, 약속이 없으면, \ \, \ \ /, / \ \ 등 다양하게 그릴 수 있고, 당김음의 의미도 읽어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표기 기준은 기본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2/4박자 ♩ 리듬꼴은 V V를 기본으로 하여, 8분음표는 띄우고, 다음 4분음표를 만들고, 다시 8분음표를 띄우는 형태인 \ \ /로 정리된다. \ 모양은 정박이 아니라 엇박 즉 당김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김음과 붙임줄에 대한 몇 가지 형태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 V Rhythm notation (draft)

Section	V Rhythm notation	
Syncopation	2/4 ♩ ♩ ♩ (rhythm notes)	2/4 ♩ ♩ (rhythm notes)
	2/4 \ ^ / (notation of rhythm)	2/4 \ ^ (notation of rhythm)
	2/4 V V (basic beats)	2/4 V V (basic beats)
Tie	3/4 ♩ ♩ ♩- ♩ ♩	6/8 ♩ ♩ ♩- ♩ ♩
	3/4 \ ^ ^ /	8/6 \ ^ V \
	3/4 V V V	8/6 V V

개발한 V자 리듬 표기법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4분음표를 V자 한 개로 하고 음표의 상대적인 길이에 따라 빗금을 더하거나 감한다. 2) 박자의 기본 박의 모양을 유지하여 음표에 대응하여 그린다. 3) 겹박자는 묶음박을 기본박으로 하여 그린다. 4) 당김음이나 붙임줄이 있는 음을 그릴 때 기본박의 특성을 유지하며 그린다.

3) V자 리듬 표기법 전문가 검토 및 완성

기존의 V자 리듬 표기법을 보완한 V자 리듬 표기법(<Table 2>, <Table 3>, <Table 4>)을 세 사람의 전문가들에게 검토받았다. 이들에게 기준을 5분간 설명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악곡 4/4박자 ‘새싹들이다(좌승원 작곡)’(Yang et al., 2020, p. 10)와 12/8박자 ‘통영 개타령(동부 민요)’(Yang et al., 2020, p. 12)를 제시하고 V자 리듬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게 한 다음, <Table 5>와 같이 유용성(효율성, 학습의 용이성, 사용의 만족성)과 보완할 점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수집하였다.

<Table 5> Standards of review

1) (Efficiency) Can V rhythm notation be taught in a short time?
2) (Efficiency) Can V rhythm notation be taught simply?
3) (Ease of learning) Is V rhythm notation a way to intuitively recognize the length of a rhythm?
4) (Ease of learning) Can V rhythm notation easily learn the concepts of rhythm?
5) (Satisfaction of use) Can V rhythm notation indicate students' songs?
6) (Satisfaction of use) Is V rhythm notation highly satisfactory after use?
7) (Complementary point) What parts of V rhythm notation should be modified or supplemented?

전문가들 <Table 5>의 검토 기준에 따라 응답해 주었다. 전문가 A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어릴 때, 리듬을 V자로 표기는 했었지만 그에 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시한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리듬을 그려 보니 내가 알고 있던 기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제시한 기준은 쉽게 배울 수 있었고 리듬을 정확히 그릴 수 있었으며, 길이와 강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표기 기준은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입니다만 이 기준이 학생들에게는 좀 복잡하다고 느끼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다양한 음표와 박자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박에 대해 예시가 좀 더 제시되고, V자 리듬 기호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악곡이 함께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은 셋잇단음표 표기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A는 현재 개발된 기준은 큰 문제는 없지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리듬에 대한 예시가 더 많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셋잇단음표의 표기법도 제안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문가 B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당김음이나 불임줄에 대한 기준도 있어서 복잡하지만 전체 기준을 모두 이해한 후에 리듬을 V자 그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V자 리듬 표기법은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배우고 익히는 데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또 음표의 길이를 이해하고 박자의 기본 강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홀박자와 겹박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겹박자를 그리는 방식에서 한 묶음들이 동일한 강세를 가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문가 B 역시 리듬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응답했고, 특히 홀박자와 겹박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 B는 V자 기호가 우리에게 친숙하다는 점, 리듬을 공간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리듬을 이해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점이라고 응답했다. B는 겹박자의 기호가 적절한지 검토해 보라는 요청을 했다. 이 표기법은 원칙이 단순해야 했고, 전문가가 겹박자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연구자가 개발한 것을 최종본으로 내놓기로 하였다. 전문가 C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V자 리듬 표기법은 리듬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고 적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불임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의 표기도 원칙에 따라 그리면 수월하게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6/8박자인 경우 한 박을 V로 표기하고 한 마디를 V V 형태로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겹박자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기본박에 대한 오개념을 심어줄 가능성은 없을까? 또 한 가지는 당김음, 불임줄, 겹박자, 홀박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용례가 더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장 정도 분량의 표기법 설명 자료가

있다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C는 표기법에 대한 보완과 6/8박자의 표기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연구자가 제시한 방식이 겹박자만 고려하고 6/8박자의 기본박인 8분음표를 덜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대로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6/8박자 기본박은 V자 한 개로 하여 한 마디를 V자 여섯 개, 즉 V V V V V V로 표기하는 데 반해,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6/8박자 한 마디를 삼각형 두 개, 즉 △ △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에 6/8박자를 여섯 박자로 그린 것은 겹박자에 대한 표식을 간과한 것이다. 많은 음악 개론서에서 홑박자와 겹박자를 구분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면 겹박자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호를 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표는 기본적으로 V자 형태를 띠어야 하고, 음표의 길이에 따라 V자에 증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6/8박자는 삼각형 두 개(△ △)가 아니라 점4분음표 두 개(∨ ∨)의 형태로 한 마디가 그려져야 한다고 보았다.

세 사람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리듬 표기법을 <Table 6>과 같이 만들었다. 셋잇단 음표를 보완하였으며, 홑박자와 겹박자의 표기법을 좀 더 보완했고, 당김음과 붙임줄에 대한 예시도 보완하였다. 이 <Table 6>은 검사를 할 학생들을 지도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Table 6> V Rhythm notation (improvement plan)

Section	V Rhythm notation				
Basic notes	$\text{♩} = \text{V}$	$\text{♪} = \text{V}$	$\text{♩} = \text{V}$	$\text{♩} = \text{W}$	$\text{♩} = \text{WWW}$
Dotted notes	$\text{♩} = \text{V}$	$\text{♪} = \text{V}$	$\text{♩} = \text{V}$	$\text{♩} = \text{WW}$	$\text{♩} = \text{WWWW}$
Triplet	$\text{♩} \text{♩} \text{♩} = \text{V} \text{V} \text{V}$		$\text{♩} \text{♩} \text{♩} = \text{V} \text{V} \text{V}$		
Rest	$\text{♩} = \text{V}$	$\text{♪} = \text{V}$	$\text{♩} = \text{V}$	$\text{♩} = \text{W}$	$\text{♩} = \text{WWW}$
Basic beats of simple time	$2/4 = \text{V V}$		$3/4 = \text{V V V}$		$4/4 = \text{V V V V}$
Basic beats of compound time	$6/8 = \text{V V V}$		$9/8 = \text{V V V V}$		$12/8 = \text{V V V V V}$
Syncopation I	$2/4 \text{ ♩ } \text{♩} \text{ ♩}$	(rhythm notes)	$2/4 \text{ ♩ } \text{♩}$	(rhythm notes)	
	$2/4 \text{ V } \text{V} \text{ /}$	(notation of rhythm)	$2/4 \text{ V } \text{V}$	(notation of rhythm)	
	$2/4 \text{ V } \text{V}$	(basic beats)	$2/4 \text{ V } \text{V}$	(basic beats)	
Syncopation II	$3/4 \text{ ♩ } \text{♩} \text{ ♩} \text{ ♩}$	(rhythm notes)	$6/8 \text{ ♩ } \text{♩} \text{ ♩} \text{ ♩}$	(rhythm notes)	
	$3/4 \text{ V } \text{V} \text{ / } \text{V}$	(notation of rhythm)	$6/8 \text{ V } \text{V} \text{ V } \text{V}$	(notation of rhythm)	
	$3/4 \text{ V } \text{V} \text{ V}$	(basic beats)	$8/6 \text{ V } \text{V} \text{ V}$	(basic beats)	
Tie I	$3/4 \text{ ♩ } \text{♩} \text{ ♩} \text{ ♩}$	(rhythm notes)	$6/8 \text{ ♩ } \text{♩} \text{ ♩} \text{ ♩}$	(rhythm notes)	
	$3/4 \text{ V } \text{V} \text{ V} \text{ /}$	(notation of rhythm)	$6/8 \text{ V } \text{V} \text{ V } \text{V}$	(notation of rhythm)	
	$3/4 \text{ V } \text{V} \text{ V}$	(basic beats)	$6/8 \text{ V } \text{V} \text{ V}$	(basic beats)	
Tie II	$6/8 \text{ ♩ } \text{♩} \text{ ♩} \text{ ♩}$	(rhythm notes)	$6/8 \text{ ♩ } \text{♩} \text{ ♩} \text{ ♩}$	(rhythm notes)	
	$6/8 \text{ V } \text{V} \text{ V } \text{V}$	(notation of rhythm)	$6/8 \text{ V } \text{V} \text{ V } \text{V}$	(notation of rhythm)	
	$6/8 \text{ V } \text{V} \text{ V}$	(basic beats)	$6/8 \text{ V } \text{V} \text{ V}$	(basic beats)	

3. V자 리듬 표기법의 이해도 검사

1) V자 기호 표기법 학습

학생(예비교사)을 대상으로 이해 정도를 검사하기 전 단계로 학생들에게 V자 기호 표기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을 가졌다.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한 시간은 40분이었으며 수업의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리듬을 V자로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설명도 없이 제시한 악곡에 대한 리듬을 V자로 그리게 하였다. 제시한 악곡은 당김음과 붙임줄을 포함하고 있는 4/4박자 ‘새싹들이다(좌승원 작곡)’(Yang et al., 2020, p. 10)와 겹박자와 붙임줄, 당김음 등을 포함하고 있는 12/8박자 ‘통영 개타령(동부 민요)’(Yang et al., 2020, p. 12)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표의 길이에 따라 대충 V자를 표기할 수는 있었지만 박자나 기본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붙임줄, 겹박자, 당김음 등을 그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 난감해했다. 리듬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전체 리듬을 V자로 정확히 그릴 수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둘째 단계는 학생들에게 리듬 V자로 그리는 기준을 <Table 7>의 내용으로 10분 동안 설명하고, 첫째 단계에서 자신이 그린 V자를 수정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오류 없이 수정하였다.

셋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악곡에 대해 V자 리듬 기호를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악곡을 제시하고, V자 리듬 기호를 그려 보게 하였다. 악곡은 당김음과 붙임줄이 있는 4/4박자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김애경 작곡)’(Yang et al., 2020, p. 40)과 겹박자, 붙임줄 등을 포함하고 있는 6/8박자 ‘다 함께 노래해’(영국 민요)(Yang et al., 2020, p. 56) 두 곡이었다. 전체 학생 중 10% 정도의 학생들은 부분적인 어려움을 느껴, V자 표기법을 다시 설명하고 악보의 리듬을 그리게 했는데, 간단한 설명만으로 V자 리듬 표기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V자 리듬 표기법을 이해한 것을 확인하고 수업을 종료했으며, 학기말 시험에 V자 표기에 대한 시험을 출제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였다.

2) V자 리듬 표기법의 이해도 검사

(1) V자 리듬 표기법 검사 절차

학생들이 리듬을 표기 기준에 따라 V자로 표기할 수 있는지, 그것이 리듬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지를 검사하였다. 검사는 V자 표기법에 대해 학습한 예비교사를 대상으

로 하였다. 학기말 시험의 전체 검사 문항은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 교과서, 음악 지도법, 리듬 지도법, 가락 지도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V자 리듬 표기법은 전체 시험의 일부로 출제하였다. 시험은 학생들의 V자 리듬 표기법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검사는 홀박자와 겹박자 악곡, 당김음, 붙임줄, 다양한 음표, 쉼표, 이음줄 등이 포함된 가락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악곡을 시험 문항으로 만들고, 학생이 악곡의 리듬을 V자로 그리게 하였다.

(2) V자 리듬 표기법의 이해도 검사 도구

V자 리듬 표기법의 검사 도구는 초등학교 수준의 악곡으로 홀박자와 겹박자의 기본박, 여러 가지 음표, 당김음, 붙임줄 등을 구별하여 표기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런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악곡을 선정하였다. 리듬 기호에 대한 대문항 3개, 그 하위 문항으로 총정 18점으로 채점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다음 [Figure 24]와 같다.

[Music score 1]

1. Draw the rhythm of the first and second stages of the above score 1 in a V shape according to the beat (Draw directly at the bottom of the score).

[Music score 2]

2. Draw the lengths of the notes in the first and second stages of the above score in a V shape to the beat.

[Figure 24] Measurement tools of understanding V rhythm notation

(3) 검사 결과 처리 방법

[Figure 24]의 [Music score 1]에 관한 1번 문항은 전체 4마디에 대해 한 마디 당 1점, 4마디 전체가 맞으면 4점으로 계산했다. 맞다는 것은 음표의 길이에 따라 4분음표는 V자 8분음표는 \ 등으로 표시되면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Music score 1]에는 당김음이 5개 나타나는데, 그 중 정확히 그리거나 표시하면 1점씩 부여하였다. 4개까지만 점수화하고 그 이상은 아는 것으로 인지하고 총점 4점으로 채점하였다.

[Figure 24] 안의 [Music score 2]에 대해서는 겹박자와 홀박자를 구분하여 그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다. 6/8박자의 기본박은 \일 수도 있고, \도 될 수가 있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겹박자의 강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자로 지도했고, \가 하나의 단위로 그릴 수 있는지 판단하였다. 여기에서는 한 마디 당 1점씩 4점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2/4박자의 4마디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채점하였다.

그리고 붙임줄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채점하였다. 6/8박자 곡에서 점4분음표 두 개를 붙임줄로 묶은 것은 \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붙임줄은 두 번 출현하는데 적절히 표시하였는지를 보고 하나에 1점씩 채점하였다.

이렇게 두 개의 악보에 대해 3개의 문항을 만들고, 세부적으로는 단위박 4점, 당김음 4점, 겹박자 6/8박자 4점, 홀박자 2/4박자 4점, 그리고 붙임줄 2점을 합하여 총 18점으로 계산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자 리듬 표기법 이해도 검사 결과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리듬 학습을 위해 개발한 \자 리듬 표기법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 <Table 7>과 같다. 00학과는 총 131학점 중 다른 학과와 비교하여 음악을 18학점 더 이수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00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과에 비해 00을 좀 더 좋아하고, 악기를 한 두 개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다. 학과 역시 다른 학과와 비교하여 00 관련 과목을 18학점 더 이수하는 학생들이다.

<Table 7>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 being inspected

Section		N	%
Major	Physical education	28	51.9
	Music education	26	48.1
Sex	Male	23	42.6
	Female	31	57.4
Grade of music subject	Poor	11	20.4
	Fair	15	27.8
	Good	28	51.9

2) V자 리듬 표기법의 이해도

본 연구는 리듬 학습을 위한 V자 리듬 기호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4개 영역(기본박에 대한 표기 이해, 음표의 길에 대한 표기 이해, 당김음의 표기 이해, 붙임줄에 대한 표기 이해)으로 나누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해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이해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박에 대한 이해도

① 4/4박자 기본박 채점 결과

4/4박자 악곡에 대해 기본박을 이해하고 4마디에 대하여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쉼표 등을 V자로 정확히 표시한 결과는 <Table 8>로 정리하였다. 전체 54명 중 44명(81.5%)이 오류 없이 응답하였고, 4마디 중 3마디만 정확히 그린 경우가 9명(16.7%)이었으며, 한 마디만 맞힌 학생은 1명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V자를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평균이 94.44점, 표준편차는 13.45였던 것에서도 학생들 대부분은 4/4박자 리듬을 V자로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기본박을 V자로 나타내는 것은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8> Results on the 4/4 beat

Score	N	%	M	SD
0	0	0	94.44	13.45
25	1	1.9		
50	0	0		
75	9	16.7		
100	44	81.5		
Sum	54	100		

② 6/8박자 기본박 채점 결과

6/8박자 악곡에 대해 기본박을 이해하고 4마디에 대하여 V자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쉼표 등을 정확히 표시한 결과는 <Table 9>로 정리하였다. 전체 54명 중 45명(83.3%)이 오류 없이 정확히 그렸고, 4마디 중 3마디만 정확히 그린 경우가 3명(5.6%)이다. 그리고 두 마디만 맞힌 경우는 4명(7.4%)이며, 전혀 못 맞힌 학생이 2명(3.7%)이었다. 전체 평균은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91.20점, 표준편차는 22.86점이었다. 겹박자 6/8박자에 대해 기본박(V)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히 그릴 수 있는 학생은 4/4박자의 평균인 94.44점보다 다소 낮은 92.20%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겹박자를 V자로 그릴 수 있었지만 홑박자보다는 평균이 다소 낮다는 점에서 겹박자에 대해 조금 어렵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9> Results on the 6/8 beat

Score	N	%	M	SD
0	2	3.7	91.20	22.86
25	0	0		
50	4	7.4		
75	3	5.6		
100	45	83.3		
Sum	54	100		

③ 2/4박자 기본박 채점 결과

2/4박자 악곡에 대해 기본박을 이해하고 4마디에 대하여 V자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쉼표 등을 그리는 검사 결과는 <Table 10>으로 정리하였다. 리듬을 V자로 정확히 표시한 경우가 전체 54명 중 53명으로 98.1%이고, 4마디 중 2마디만 정확히

그런 경우가 1명이며 1.9%(V자의 방향 등 사소한 오류)였다. 2/4박자의 리듬에서는 오류가 거의 없었으나, 한 명의 학생만 점 4분음표로 그리는 데, 그리고 8분음표를 V자로 분리하는 방식에 대해 오류를 보였다. 이 결과는 붙임줄, 당김음 등이 없는 단순한 음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V자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Table 10> Results on the 2/4 beat

Score	N	%	M	SD
0	0	0	99.07	6.80
25	0	0		
50	1	1.9		
75	0	0		
100	53	98.1		
Sum	54	100		

(2) 당김음 이해도

당김음을 그릴 수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당김음 부분만 표기하게 하여 채점하였다. 이 악보에는 다섯 부분에 당김음이 있는데, 학생들의 테스트 결과는 <Table 11>로 정리하였다. 당김음은 학생 54명중 32명만 정확히 그려 59.3%만 정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3개를 맞힌 학생이 8명 14.8%, 2개를 맞힌 학생이 5.6%, 또 1개를 맞힌 학생이 11.1%, 1개도 못 맞힌 학생이 9.3%였다.

<Table 11> Results on the syncopation

Score	N	%	M	SD
0	5	9.3	75.93	35.01
25	6	11.1		
50	3	5.6		
75	8	14.8		
100	32	59.3		
Sum	54	100		

이 연구에서 제시한 V자 그리기 기준에 따르면 당김음은 V자가 거꾸로 그려지기 때문에 대체로 쉽게 당김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당김음에 대한 정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대략 60%의 학생들만 오류 없이 그렸으며, 26.9%의 학생

들은 한 개 이하의 오류를 범했다. 엄밀히 해석하면 V자 기호가 당김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이나 시간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붙임줄 이해도

붙임줄을 그릴 수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붙임줄이 있는 부분의 표기에 대해 2개를 모두 맞힌 경우와 1개만 맞힌 경우 그리고 전혀 못 맞춘 경우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2>로 정리하였다. 2개를 모두 맞힌 학생은 54명 중 23명으로 42.6%였다. 그리고 1개만 맞힌 학생이 15명으로 27.8%, 또 전혀 맞추지 못한 학생은 16명으로 29.6%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V자 그리기 기준에서 붙임줄 부분이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오류는 이음줄과 붙임줄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붙임줄로 붙여 있는 리듬을 붙이지 않고 분리해 놓는 경우, 마디선의 붙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붙임줄을 지도하는 과정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일과 더 다양한 설명 자료를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Table 12> Results on the tie

Score	N	%	M	SD
0	16	29.6	56.48	42.39
25	0	0		
50	15	27.8		
75	0	0		
100	23	42.6		
Sum	54	100		

(4) 리듬 전체 이해도

리듬 기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전체적인 통계의 결과는 <Table 13>으로 정리하였다. 박자 기호 중 겹박자 6/8박자가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고, 2/4박자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왔다. 6/8박자는 겹박자이며, 붙임줄, 이음줄 등이 출현하는 것이 낮은 점수의 원인으로 추정되며, 2/4박자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은 리듬형이 단순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자 기호보다는 당김음과 붙임줄에 대한 점수가 더 낮았다. 당김음과 붙임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문제, 표기 기준이나 학습 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13> Overall results about V rhythm notation

Field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4/4 beat	54	94.44	13.45
6/8 beat	54	91.20	22.86
2/4 beat	54	99.07	6.80
Syncopation	54	75.93	35.01
Tie	54	56.48	42.39
Average	54	85.33	14.54

3) 변인에 따른 차이 검증

(1) 전공에 따른 차이 검증

00대학교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리듬 기호 표기 이해도의 차이는 <Table 14>로 정리했다. 전공에 따른 차이는 붙임줄에서만 통계적으로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줄에 대해서는 00학과가 00학과보다 평균값에서 24.59점 차이가 나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외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점은 음악적 환경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리듬을 V자로

<Table 14> Verification of differences according to major

Field	Major	N	M	SD	t	p
4/4 beat	Physical education	28	95.54	15.30	.61	.541
	Music education	26	93.27	11.31		
6/8 beat	Physical education	28	85.71	29.99	-1.87	.067
	Music education	26	97.12	8.15		
2/4 beat	Physical education	28	100	0	1.03	.304
	Music education	26	98.08	9.81		
Syncopation	Physical education	28	78.57	30.97	.57	.569
	Music education	26	73.08	39.32		
Tie	Physical education	28	44.64	39.30	-2.20*	.032
	Music education	26	69.23	42.61		
Total	Physical education	28	83.18	14.49	-1.13	.262
	Music education	26	87.66	14.50		

*p<.05

그리는 능력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음악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V자 리듬 표기법을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차이의 결과는 <Table 15>로 정리하였다. 00대학교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리듬 기호 표기 능력의 차이는 어떤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V자 리듬 표기법의 이해 수준이 성별에 따라 구별되지 않으며, 학습 방법이나 내용에 차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Table 15> Verification of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Field	Sex	N	M	SD	t	p
4/4 beat	Male	23	96.74	8.61	1.08	.284
	Female	31	92.74	16.06		
6/8 beat	Male	23	96.74	11.44	1.55	.126
	Female	31	87.10	28.04		
2/4 beat	Male	23	97.83	10.43	-1.16	.249
	Female	31	100	0		
Syncopation	Male	23	75.00	33.71	-.16	.869
	Female	31	76.61	36.48		
Tie	Male	23	50.00	47.67	-.96	.338
	Female	31	61.29	38.10		
Total	Male	23	85.68	12.36	.15	.881
	Female	31	85.08	16.16		

(3) 음악 성적에 따른 차이 검증

음악 전체 성적과 V자 리듬 표기법에 대한 성적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여, 그 결과는 <Table 16>으로 정리하였다. 음악 성적은 상중하로 구분하고, 그것과 V자 리듬 표기법에 관한 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 통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4/4박자, 당김음, 붙임줄이었다. 음악 전체 성적이 높은 것과 4/4박자, 당김음, 붙임줄 등을 그리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을수록 V자 리듬 표기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Table 16> Verification of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of music subject

Field	Grade of music subject	N	M	SD	F	p (Multiple comparisons)
4/4 beat	Poor	11	84.09	23.11	5.92**	.005 (Good>Poor)
	Fair	15	93.33	11.44		
	Good	28	99.11	4.72		
6/8 beat	Poor	11	84.09	32.16	1.59	.213
	Fair	15	86.67	28.14		
	Good	28	96.43	13.11		
2/4 beat	Poor	11	100	0	1.31	.277
	Fair	15	96.64	12.91		
	Good	28	100	0		
Syncopation	Poor	11	43.18	35.52	9.46***	.000 (Good>Poor)
	Fair	15	73.33	39.49		
	Good	28	90.18	21.88		
Tie	Poor	11	22.73	41.01	9.91***	.000 (Good>Fair>Poor)
	Fair	15	43.33	37.16		
	Good	28	76.79	34.65		
Total	Poor	11	70.83	17.38	16.87***	.000 (Good>Fair>Poor)
	Fair	15	80.83	12.27		
	Good	28	93.45	7.72		

p<.01, *p<.001

2. V자 리듬 표기법의 유용성에 대한 면담

검사 후 3명의 학생(예비교사)들과 V자 표기법의 유용성에 대해 면담하였다. 유용성은 효율성, 학습의 용이성, 사용의 만족성 등을 중심으로 면담하였다. 검사의 전체 평균이 85점이었기 때문에 만점 학생(A학생)과 90점대 학생(B학생), 그리고 80점대의 학생(C학생)을 선정하여 V자 표기법의 유용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A학생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저는 어릴 적에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V자 표기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겹박자나 홀박자의 구분이나 당김음, 붙임줄 등에 대해서는 원칙 없이 그렸었습니다. 이번에 원칙을 배우고, 원칙대로 그렸더니 리듬과 박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시한 기준이 V자와 4분음표를 대응시키고 있고, 기본박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홀박자와 겹박자를 알고 있었지만 V자를 활용하여 그려 본 후에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자 표기 기준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던 표기법에 일부를 보완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배우는 데 어렵지 않았고, 시험 문제도 잘 풀 수 있었습니다. 이 표기법을 알고 난 후에 제가 연주하는 피아노 악곡의 리듬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V자 리듬 표기법을 제가 학생을 가르칠 때 활용하고 싶습니다.

음악을 어릴 적에 배워, 기본적인 V자 표기법을 알고 있던 A학생은 다소 복잡해진 V자 기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A학생은 V자 표기를 통해 리듬과 박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특히 홀박자 겹박자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쉽다고 했다. 자신이 학생을 가르칠 때 활용하고 싶다고 했다. A학생은 V자 표기법이 리듬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92점을 맞은 B학생은 박자에 따른 V자는 모두 맞았지만 붙임줄과 이음줄을 구별하지 않아서 감점이 된 학생이었다. 감점이 된 사실을 알리고 그 이유와 V자의 유용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음의 B학생의 대답이다.

V자를 그릴 때 붙임줄을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시험을 볼 때, 붙임줄과 이음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붙임줄로 그렸습니다. 시험보고 난 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바로 알았습니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시험은 잘 못 봤지만 V자 리듬 표기법은 리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V자를 바르게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박자를 이해해야 하고, 기본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김음이나 붙임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전에 배운 개념이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V자를 기준에 따라 그리면서 리듬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자를 배우는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리듬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급 학생들이 리듬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B학생은 V자를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붙임줄, 이음줄, 당김음, 겹박자 등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B학생은 A학생과 같이 리듬을 V자로 표기하는 것이 리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고,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그 유용성을 긍정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C학생은 당김음을 정확히 표기하지 못했고, 붙임줄을 일부 그리지 못해 점수가 낮았다. C학생은 V자의 유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저는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V자 그리는 것은 처음 해 보았습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는 홀박자나 겹박자가 뭔지 잘 몰랐고, 당김음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리듬에 대해 배우고 리듬을 V자 표기 원칙에 따라 그렸더니 박자에 따라 박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 리듬의 모양에 따라 당김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 리듬의 특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V자로 그리고 그것을 손뼉으로 치면서 그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긴 했습니다. 저는 시험은 잘 못 보았지만 V자로 리듬을 그리는 것이 리듬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V자는 리듬의 길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강세도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좀 더 연습을 더 해서 시험을 보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V자는 꼭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시험을 잘 보지 못한 C학생도 V자 기호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특별히 박자의 구분이나 강세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한다. V자 그리기가 리듬의 개념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도 의미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자 그리기에 대해서 배우고 평가를 받은 학생들 중 성적에 따라 세 명의 학생들을 선정해서 면담해 본 결과 학생들 모두 V자 그리기가 어렵지 않았고 리듬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것은 박자의 특징, 당김음, 붙임줄 등 리듬의 세부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V. 결론

연구의 목적은 리듬 학습에 유용한 V자 리듬 표기법을 개발(보완)하는 것이다. V자 리듬 표기법은 우리나라에서 활용되어 온 리듬 학습의 보조 기호이나 우리나라 문헌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1950년대 일본의 음악 교과서와 1990년대 북한의 음악 교과서, 그리고 인터넷에 탑재된 우리나라 음악학원 자료 등에서 발견된다. 일본과 북한의 음악 교과서나 인터넷에서 제시되고 있는 V자 리듬 표기법은 간단한 음표만 표기할 수 있는 수준이며, 홀박자나 겹박자의 구분, 당김음, 붙임줄 등 다소 복잡한 음표에 대한 표기법은 원칙이 분명하지 않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되는 대부분의 가창곡을 표기할 수 있는 V자 리듬 표기법을 개발한다. 2) 음악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기 원칙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3) 개발된 V자 리듬 표기법을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리듬의 이해도를 검사한다. 4) 음악교육전문가와 예비교사를 대상

으로 면담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한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급 단계의 리듬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리듬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조 도구를 필요로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V자의 리듬 표기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4분음표를 V자 한 개로 그리고 음표의 상대적인 길이에 따라 빗금을 더하거나 감한다. 2) 박자의 기본박에 해당하는 V의 모양을 유지하여 음표에 대응하여 그린다. 당김음이나 붙임줄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린다. 3) 홑박자는 홑박을 기본박으로 그리고, 겹박자는 묶음박(겹박)을 기본박으로 그린다.

셋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V자 리듬 표기법은 초급 단계에서 리듬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나타내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전문가와 예비교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예비교사들은 이 연구에서 개발한 V자 리듬 표기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할 때 문제를 느끼거나 걸림이 없었으며, 리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V자 리듬 표기법은 음악교육 전문가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그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후속 연구는 실제 이 표기법을 활용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유용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는 초등학생들에게 이 연구에서 개발된 V자 리듬 표기법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이 표기법을 그릴 수 있는지 검사하고, 이 표기법이 학생들의 리듬 이해나 표현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리듬을 V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한정했지만 후속 연구는 V자로 그린 리듬을 읽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리듬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리듬을 읽을 수 있는 리듬 말이 필요한데, Kodály나 Orff 방식이 있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악곡을 리듬 말로 표현하는 데는 역시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 필요하다. V자 리듬 표기법에 어울리는 리듬말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Jang, G. N., Kim, S. H., Ju, H. D., & Hong, S. M. (1990). *Music (for primary school 1st grade)*. Pyongyang: Kyoyukdosea Publication.
- Berger, A. A., Burrough, R., Burton, J. B., Bush, J. E., Cooksey, J. M., Cooper, S. C.,

- Darrow, A. A., Emmons, S., Erck, D., Fennell, A. M., Fisher, D., Gonzo, C., Harms, L., Hilley, M. F., Hines, D. B., Junda, M. E., Kalbach, D. Lacroix, S., Leck, H., Longden, S., Richter, G. A., Rodriguez, C. X., Sanz, K. D., Scott, J. K., Spell, G., Stevenson, B., Walls, K. C., Wiggins, J., & Yoder-White, M. (2008). *Making Music: California Edition*. New York: Pearson Scott Foresman.
- Cho, H. K. (2004). *Kodály music education*. Seoul: Sekwang.
- Cho, S. (2015). A study of TaKeTiNa rhythm proces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4), 241-260.
- Choksy, L. (1999). *The Kodály method I: Comprehensive music educ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 Dongtan Philia Music Academy (2022). Musical notes and rests instrumentation (V rhythm notation). Retrieved June 20, 2022, from https://blog.naver.com/philia_music
- Geumse Study Room (2002). V character according to the beat. Retrieved June 5, 2022, from <https://geumse.tistory.com/13>
- Han, J. S., Cho, D. H., & Yoon, S. W. (2019). An analysis of research for teaching music reading ability. *The Journal of Music Application Studies*, 11, 145-163.
- Hong, S. M., Kim, S. H., Jang, G. N., & Ju, H. D. (1990). *Music(for primary school 4th grade)*. Pyongyang: Kyoyukdosea Publication.
- Hwang, W. J. (Consultant) (2012). *Music primary*. Singapore: Pearson Education South Asia Pte Ltd.
- Jeong, E. J. (2013).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wareness for the usefulness of educational theorie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20(1), 62-82.
- Ju, H. D., Hong, S. M., Kim, S. H., & Jang, G. N. (1990). *Music(for primary school 3rd grade)*. Pyongyang: Kyoyukdosea Publication.
- Jung, Y. J. (2022). A study on the meaning and description of core concept and central ideas in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3), 157-177.
- Kim, M. S. (2012). A prospect on concept mapping for learning of music elem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2), 101-123.
- Lee, H. S.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ercussion music class using the play method for upper level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terials used for percussion instruments are househol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1), 71-97.

- Lee, J. H. (2002). *Studies on rhythmic solfege of Emile Jaques-Dalcroze*. Master's thesis, Yonse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Lee, Y. K. (1999). The review of the related research findings: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hythmic abilities of children.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3, 265-302.
- _____. (2000). A comparison of various rhythm teaching approaches. *The Music Research*, 21(1), 343-388.
- Ministry of Education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2). Standard Korean dictionary. Retrieved June 7, 2022, from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Neumann, F., Burns, L., Kögel, M., & Pickro, B. (2010). *Duett Schülerbuch 1/2*. Stuttgart, Leipzig: Ernst Klett Verlag.
- Orff, C., & Keetmann, G. (1978). *Musik für Kinder*. Mainz: SCHOTT.
- Oxford University Press (2022a). Oxford English dictionary. Retrieved July 5, 2022, from <https://www.oed.com/view/Entry/>
- _____. (2022b). Oxford languages. Retrieved July 7, 2022, from <https://languages.oup.com/>
- Rim, M. K., Hyun, K. S., Cho, S. I., Kim, Y. H., & Rhee, E. (2010). *Music teaching method: Dalcroze, Kodály, Orff, Gordon, comprehensive musicianship*. Seoul: Hakjisa.
- Seo, J. W. (2008). A study on the Kodály solfege teaching method for the thir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Music Application Studies*, 1, 107-133.
- Seung, Y. H., Min Y. H., Yang, J. M., & Chung, J. W. (2020).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eoul: Hakjisa.
- Song, J. J. (2019). Shaping of the ideas of Jaques-Dalcroze, Kodály and Orff on rhythmic education through corporeal moveme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3), 103-127.
- Szönyi, E. (1990). *Kodály's principles in practice*. Hungary: Corvina.
- Warner, B. (1991). *Orff-Schulwerk: Applications for the classroom*. New Jersey: Prentice Hall.
- Wikipedia (2022). Rhythm.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en.wikipedia.org/wiki/Rhythm>
- Yang, J. M. (2017).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ore competence and musical competence:

Korea, Japan, Singapore, and United Kindom, and US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181-205.

_____ (2019). Ethnic music education in Korean schools in China and Japa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181-205.

Yang, J. M., Kim, E. Y., Park, J. H., Kim, D. H., Park, J. Y., Lee, D. H., & Kim, E. J. (2020). *Music 6 elementary school music text book*. Seoul: Chunjae TextBook.

Yoon, J. Y. (2018). The effect of singing activity based on the rhythm element on a preschool child's musical interest and self-regulation abil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3), 97-119.

木村次宏, 新実 徳英, 伊野義博, 金谷昌治, 金子健治, 桑原啓郎, 阪本佳子, 新山王政和, 高倉弘光, 坪能由紀子, 寺田貴雄, 中地雅之, 中島寿, 長島真 人, 野村幸治, 橋本佐保美 (2014).

小學音樂 音楽のおくりもの. 東京: 教育出版.

吴斌 (2001). **音樂 1**. 中國: 人民音樂出版社.

佐佐木英, 黒沢隆朝 (1953). **小學音樂 3學年**. 日本: 全音樂譜出版社.

佐佐木英, 黒沢隆朝 (1954). **小學音樂 5學年**. 日本: 全音樂譜出版社.